

# 전남쌀로 전한 지진 피해 위로...사는 곳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

## “나주 배·경북 사과 사자” 문전성시

### 영호남 상생장터 68개 부스...“값 싸고 고품질” 구매 행렬

영호남 지역농가들이 올 한해 정성껏 기른 '청정 농수특산물'이 지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난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열린 광주시 광주천 특설행사장(광주공원 앞) 일대 '2016 영호남 상생장터'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행사기간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대구·경북지역 33개, 광주·전남지역 35개 등 총 68개 영호남 농수축산물 부스는 열기로 가득했다.

품질과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시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입소문도 한몫했다.

브랜드 사과 '스마플'을 판매하는 경북 문

경시 부스 앞에는 첫날부터 구매행렬이 줄을 이었고, 대구 팔공산 '미니사과'와 미나리 가공식품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엽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성주군의 '성주참외'는 행사 마지막날 준비한 물량이 '완판' 직전까지 가는 등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대구·경북에 '사과'가 있다면 전남에는 나주 배가 있었다.

영광 모싯잎 송편과 보성 녹차, 완도 미역 등 각 부스마다 마련된 향토 먹거리 시식·시음 코너는 전라도 넉넉한 인심을 맛보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안동 작한농장 이은열·김군희(안동시 녹전면) 대표는 "판매를 떠나 영호남의 특산품을 서로 알리고 각 지역 농가들 간 화합하는 자리였다"며 "내년에 열리는 영호남 문화대축전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라도·경상도 농특산물 다 모였네

### '농수산물 331장터' 44개 시·군 55개 부스 운영

전남도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등이 지난 1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에 의한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주시민들을 위해 전남쌀 200포대(10kg)를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낙연 전남지사,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남경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권기승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경제사업본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경북 농수산물 331장터' 홍보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전남을 비롯해 경북, 대구 등 영호남권 44개 시·군의 55개 부스를 모두 둘러 전남과 경북의 농산물 가공 수준, 재배 품목을 비교·분석했다.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지사는 과수 품종, 이력 등을 판매상인들에게 설명해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선보였다. 영천 사과와 배, 성주 참

외, 영양 오미자, 상주 아로니아 등 경북 시·군의 대표 특산물과 관련 "소가죽에 어울리도록 사과와 배의 크기가 작고 3~5개 정도로 소포장한 것이 경북 과수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331장터에서 인기 상품으로 부상한 경산시의 대추떡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참쌀 떡 사이에 대추가 씹히도록 해 식감과 맛이 모두 뛰어났다"고 덧붙였다.

전남 22개 시·군도 각 지역의 독특한 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선보였다. 순천의 함초과자, 장흥의 김부각, 해남의 고구마스틱 등이 인기였다. 허정 회장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은 각 부스를 돌며 상품을 직접 구매해 눈길을 끌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진 피해 돕기 한마음  
경북에 쌀 200포대

“불거리 많네”



'2016 영호남 문화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승(오른쪽부터) 광주일보사장과 여창환 매일신문사장, 우병윤 경북도 정무실장,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전남·경북 농수산물 331장터' 홍보관에서 영호남지역 농수특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북지역 지진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전남쌀 전달식'이 지난 1일 이낙연(가운데) 전남지사,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남경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권기승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경제사업본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경북 농수산물 331장터' 홍보관 앞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안 첫갈인갑소”



'2016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열린 1일, 광주천 특설행사장에 마련된 '영호남 상생장터'(신안군 부스)에서 시민들이 첫갈 등 농산품을 구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함께 즐겨요”



광주지역 밴드 '프롤로그'가 광주천 둔치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영호남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는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